기독일보

2025년 5월 2일 금요일 | www.christiandaily.co.kr |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778호

"국가인권위원회의 퀴어축제 불참이 혐오? 독선적이고 이중적"

거룩한방파제·반동연·자유행동 등, 인권위 앞 기자회견

시민단체들이 올해 열리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불참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측에 대한 일부의 비난을 규탄했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자유행동), 학부모단체연합은 1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난한 일부 단체들을 규탄했다. 또 소위 '인권위원회 엘라이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퀴어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인권위 일부 직원들도 비판했다.

거룩한방파제 등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단체들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을 '혐오세력 대변인'인 것처럼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연 사실을 알고 공분을 느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다수 국민을 혐오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파시즘적 사고이며, 자신들을 특권계층으로 인식하는 매우 위험하고 독선적인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그 누구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건 전체주의자들의 광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인권위가 다수 국민의 비판·반대를 무릅쓰고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지원해 온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인권위가 9년 만에 불참하기로 한 사실을 큰 잘못이라도 한 양 호들갑 떨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권위로부터 차별·배제당해온 사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태로 보이며,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응석받이 행동처럼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거룩한방파제, 반동연, 자유행동 등 단체 관계자들이 1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아울러 "자신들은 집요하게 차별·배제하지 말라면서 자신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다수 국민은 철저히 차별·배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도 했다.

또한 "일부 인권위 직원들의 노골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인 인권위 직원 중 일부가 '인권위원회 엘라이 모임'을 결성하여 그 이름으로 퀴어축제에 참여해 부스까지 차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를 절대 좌시치 않고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정을 비판하며 '중립을 가장해 혐오할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오만불손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며, 즉시 공무직에서 물러나 시민활동가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판교사랑의교회, '탈북민 교회 섬김의 날' 행사 개최

북기총과 탈북민 교회 후원도

판교사랑의교회(담임 박준호 목사)는 최근 '탈북민 교회 섬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교회는 그동안 기도하고 후원해 오던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환대하고 섬기면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기총(북한기독교총연합회)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북한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판교사랑의교회

판교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탈북민 교회 섬김의 날'에는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강철호 목사와 임원진, 7개의 탈북민 교회 목회자 부부와 판교사랑의교회 박준호 담임 목사를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다. 당일 행사에서는 북한선교헌금 1,350만 원을 기부하는 전달식이 있었고, 결연된 교회 목회자 7명을 위해 판교사랑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다.

탈북민 목회자를 위한 선물 전달식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한 후에 수요예배시간에는 북기총 강철호 목사와 7명의 목회자의 설교와 간증이 있었다. 판교사랑의교회가 결연하여 섬기고 있는 탈북민 교회는 북부중앙교회, 하나비전교회, 하나로드림교회, 향연교회, 회령교회, 은혜세대교회, 나뭇가지교회이다.

판교사랑의교회 측은 성도들이 모두 은혜받으며 북한선교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은혜받은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비전을 갖고 사역을 진행해왔으며 특별히 북한선교 사역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판교사랑의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 중 우선순위가 북한 동포임을 생각하며 북한선교를 위해 여러 가지 섬김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판교사랑의교회

그러면서 "최근에는 북한선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한국에 와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것임을 발견하고 2024년부터 70개 탈북민 교회중 10%인 7개 교회와 결연을 맺고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왔다"고 했다.

판교사랑의교회 박준호 목사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 "최근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휴전선 이북, 너무 가까운 곳에 복음에서 소외된 북한 동포들이 있다"며 "북한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섬기는 것은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이기에 이번 사역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됐다. 지금은 탈북민을 섬기고 동역하며 북한 선교사역을 할 시기"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션윈예술단, 과천 공연 앞두고 교계·시민단체 반발 확산

중국 전통문화 예술을 표방하는 션윈(Shen Yun)예술단의 내한공연이 논란에 휘말리며, 오는 5월 9일과 1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예정된 공연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종교계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션윈은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공연단체로, 중국 고대 전통과 신화를 무용과 음악으로 재현하는 퍼포먼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연의 이면에는 단원 전원이 파룬궁 수련자임을 내세우며, 정치적·종교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공연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파룬궁 박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단체 측은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공연"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예술적 외피를 쓰고 특정 종교 사상을 홍보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4월, 산하 교단들에 공식 공문을 보내 션윈 공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람 자제'를 권고했다. 한교총은 "공연이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적 포교를 시도하고 있다"며 교계와 성도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측도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로 규정한 바 있다.

앞서 춘천에서 예정돼 있던 공연이 관객 안전과 외교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대관이 취소되자, 션윈 측은 법원에 공연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션윈예술단 ©홈페이지 캡처

과천시도 지역사회의 민감한 정서를 의식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과천은 신천지 본부 소재지로 알려져 있어, 이단 및 사이비 관련 이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이 크다. 실제로 과천지역 교계는 이미 공연일에 맞춰 반대 집회를 예고했고, '과천지킴시민연대'를 비롯한 6개 이단 대응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연장 대관을 승인한 과천문화재단은 예술적 기준에 따른 정기 대관 절차를 거쳐 공연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향후 종교·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관 규정상으로도 '특정 종교의 포교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교계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공공시설 대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이비 논란이 있는 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왜곡된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전 검증과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천지킴시민연대 김정수 목사는 "공연을 빌미로 시민들을 포교하려는 시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션윈 측은 논란과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형구 기자

내전 후 박해 심화된 미얀마 성도들 위해 기도를 》 7면

김진홍 목사, '하보우만의 약속' 단체 관람 호소 》 23면